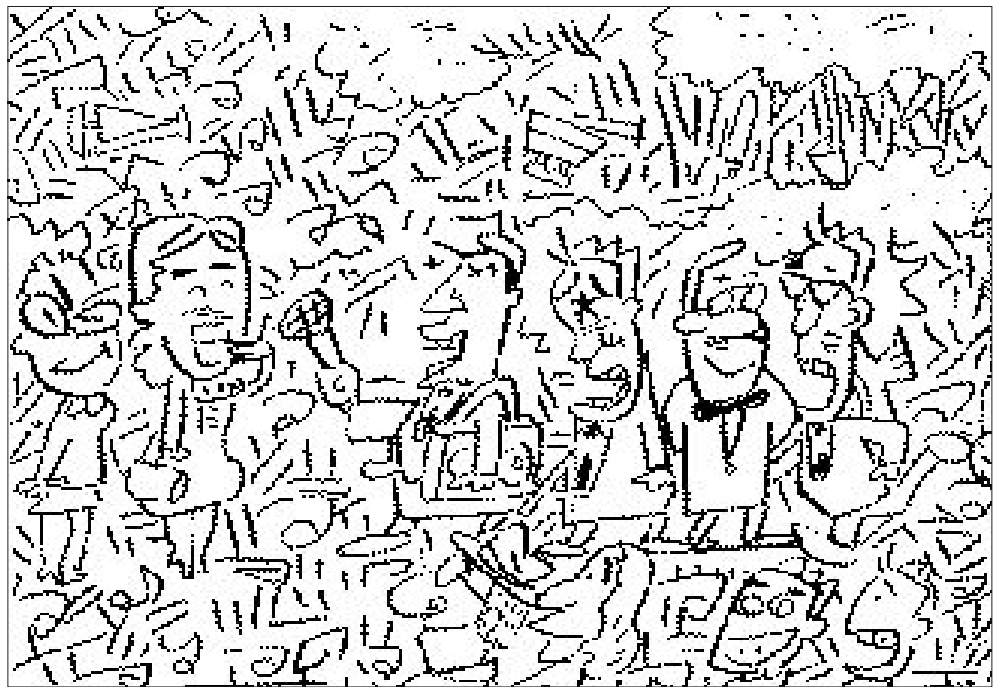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09>



찾아보세요 화살, 펜촉, 고추, 뭇, 슬리퍼, 열대어, 다리미, 뚝단배, A자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 1. 낱장고 같은 남자 : 체구에 비해 능력이 단순하다.
2. 다리미 같은 남자 : 금방 뜨거워 지고 금방 식는다.
3. 커피포트 같은 남자 : 성능에 따라서는 2분이면 끝난다.
4. 식기세척기 같은 남자 : 오목한 그릇은 제대로 못 닦는다.
5. 세탁기 같은 남자 : 몇 번 터치만 해주면 끝까지 혼자서 다 알아서 한다.



지난주 정답

은행잎, A자, 송사리, 셔플록, 고추, 고슴도치, 바늘, 열대어, 음표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이서영(광주시 북구 우산동), 정창길(순천시 서면)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美 최초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 발사

1958년 1월 31일 밤 10시28분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가 발사되면서 미국과 소련의 '우주전쟁' 서막을 알렸다.

소련은 미국에 앞서 1957년 10월 4일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올려 '우주시대'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 달 뒤인 11월 3일 소련은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미국은 잇따른 소련의 인공위성발사를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부르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자존심 꺾인 미국은 인공위성 발사를 급히 서둘러야 했다. 미국 해군의 벤가드 팀은 로켓 발사시험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채 발사를 감행해야 했다.

미국은 비밀리에 인공위성을 발사했던 소련과 달리 TV생중계를 하면서 자존심 회복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무리하게 발사를 준비하면서 인공위성을 실은 '선구자'라는 뜻을 가진 벤가드 로켓이 발사와 동시에 주저앉으면서 폭발하고 말았다.

독일 출신의 과학자 존 브라운은 실패를 기회로 삼았다. 2차 대전 말기 나치를 위해 V-2 로켓을 개발했던 나치 당원이자 친위대 출신의 브라운은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에 투항해 1955년 미국 시민이 된 인물이다. 이미 1954년 자신의 V-2 로켓을 발전시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지만, 독일인에게 인공위성 발사를 맡기고 싶지 않았던 미국 내부의 반대로 계획이 취소됐었다.



익스플로러 1호의 발사가 성공한 뒤 제작자들이 모형을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브라운은 1956년 주피터-C 로켓에 소형의 로켓과 모래를 담은 가짜 인공위성을 실어 하늘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던 경험을 살려 주피터-C에 소형 로켓을 묶어 4단계의 인공위성 발사용 주노-1호 로켓을 완성한다. 결국 1월31일 무게 14 kg, 직경 15cm의 '탐험가'라는 이름의 익스플로러 1호가 주노-1호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됐다.

익스플로러 1호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방사능대(벨 얼던대)를 발견하는 데 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소련은 1961년 4월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냈다가 귀환시켰고,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1969년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첫발을 내딛는 등 두 강대국 치열한 '우주전쟁'이 계속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빙 센스

찾잔 활용하기

자주 사용하다 보면 찾잔이나 머그컵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죠.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고 보기에 좋지 않은 금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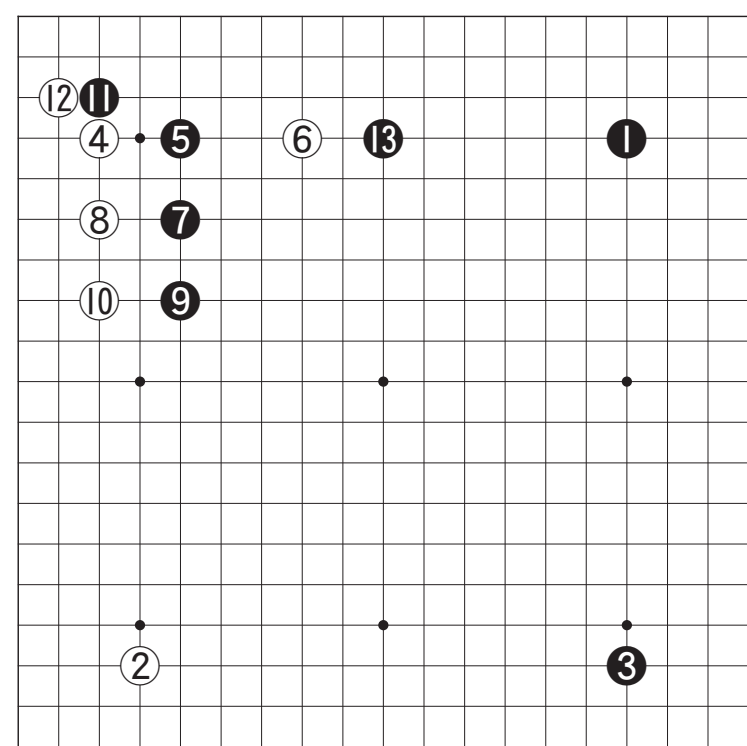
찾잔이나 머그컵에 금이 가면 바로 냄비에 우유를 넣어 준 뒤 그 안에 찾잔을 담고 4~5분간 끓여주세요. 우유의 단백질이 금이 간 틈을 메워주면서 신기하게 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금이 갔을 때 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간 곳에 때가 붙어서 우유로 끓여도 때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

이거 빠지고 오래된 찾잔이나 머그컵은 미니 화분으로 재활용해보세요. 먼저 재활용할 찾잔을 물에 푼 담가주세요. 물기를 깨끗하게 닦은 뒤 바닥 앞 뒷면에 유리테이프를 붙이고 못과 망치를 이용해 살살 두드려주면 찾잔을 깨지 않고 구멍만 뚫을 수 있습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월 30일(음 12월 23일 己卯)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and their daily fortune. Each row includes the zodiac symbol, a brief description of the day's luck, and a reference number.



제5회 KBC사장배

유단자부

결승전

의미있는 결승전 1보(1~13)

白 선민호 (효력초등 6)
黑 이건희 3단 (월봉초등 5)

이번 대회에는 이지역 청소년 6백여명이 참가하여 대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숫자도 사실은 많이 제한한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바둑이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종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바둑은 초등학생이 참가하는 유단자부의 결승국으로 월봉초등학교 5학년인 이건희군과 효력초등학교 6학년생인 선민호군의 대결이다. 초등부의 강자들이 최강부로 출전했기 때문에 유단자부의 비중은 조금 떨어진다. 그러나 유단자부의 결승에까지 오른다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관문을 돌파해야만 한다. 특히 두어린이는 바둑을 학교 공부와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결승진출은 보다 값진 성과며 의미있는 결승전이다. 돌을 가린 결과 이건희군의 흑번이다. 현대바둑은 덤이 6집반으로 커졌기 때문에 흑·백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아직 흑을 선호하는 기사들이 많다. 속기바둑이 많아진 요즘에는 아무래도 흑번이 주도권을 잡기가 용이하다.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건희군도 초반부터 흑번답게 흑 5로 걸치고 13까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KBS 바둑왕전 온소진 쾌조

온소진 4단과 이현호 초단이 제27기 KBS바둑왕전 본선 1회전을 통과했다. 온소진은 지난 28일 서울 KBS신관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이 대회 본선 1회전에서 한승준 초단을 166수만에 불계승으로 물리쳤다. 온소진은 2회전에서 이창호 9단과 만나게 됐고, 이날 김진우 3단을 꺾고 2회전에 진출한 이현호 초단도 조한승 9단과 겨루게 됐다. 이번 대회 상금은 우수 2천만원, 준우수 6백만원이다. 한편 지난 대회 우수, 준우승을 차지한 이창호 9단과 조한승 9단은 올해 개최될 예정인 제20회 TV바둑아시아선수권에 출전하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 large table with four columns for language learning: English (I guess I could come over), Japanese (微調整), Chinese (怎么走?), and Korean (한자 이야기). Each column contains a title, a short text, and a list of questions/answers in the respective language.